

## 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8.20일)

- 지금부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국가 경제·사회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
  -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“진짜 성장”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- 이러한 경제 대혁신은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  -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“혈류”입니다.
  - 공급망의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.
- 정부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, 수입 다변화,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  - 이를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,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# [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개편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]

- 먼저,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개편하겠습니다.
  -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오늘 논의를 통해 새롭게 개편하여 확정합니다.
  - 금번 개편을 통해 AI·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①핵심광물, 그리고 ②우주항공, ③방산, ④민생의 4가지 분야에서 핵심품목들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.

-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운·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- 특히,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### [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(안)]

- 다음으로, 자원의 확보·수급·생산 등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하겠습니다.
- 공급망은 그 특성상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, 공급망 內 취약지점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합니다.
- 이에 정부는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-유통-생산의 3단계로 구분하고,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### [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계획(안)]

- 전시상황 등과 같은 여러 위기에도 경제공급망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
- 경제안보는 위험요소의 빠른 사전 포착에서 출발하며,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.
- 정부는 우선 금년 내로 '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'를 마무리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- 특히,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·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